

할머니의 일기장

어느 날, 외출한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옛날에 쓰신 일기장을 발견했다.

어라, 이게 뭐지?

툭



일기 속의 할머니는
지금의 내 나이 정도였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우와~

딱 한.장만 읽어야지

할머니는 내 나이 때
어떻게 지내셨을까?

20XX. X. XX. 날씨: 맑음
오늘 TV에서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을 봤다.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도 글씨를 쓰셨을지 궁금해졌다.

특히 우리 할머니는 글씨를 쓰실 때
정말 정성껏 쓰셨을 것 같아.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도 글씨를 쓰셨을지 궁금해졌다.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도 글씨를 쓰셨을지 궁금해졌다.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도 글씨를 쓰셨을지 궁금해졌다.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도 글씨를 쓰셨을지 궁금해졌다.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도 글씨를 쓰셨을지 궁금해졌다.

오늘 TV에서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을 봤다.

특별기획 방송
통일을 말하다

멀게만 느껴지는 '남북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흠...

통일? 글썄...
우리랑 상관 없는 일 아냐?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는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그리게 되고,

꺼이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을 보면
안타까워 할 것이다.

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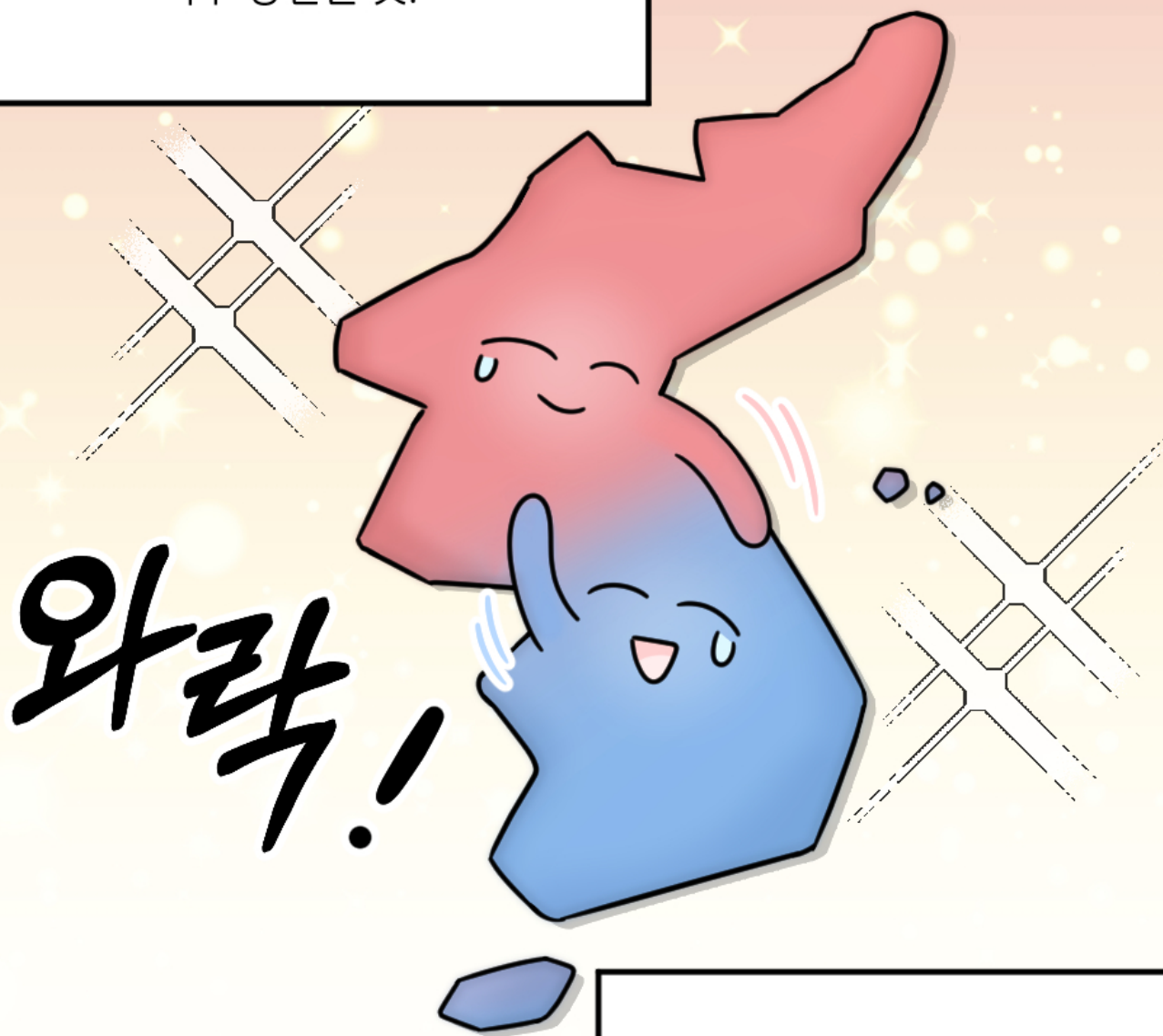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와
아무리 멀리 떨어진다고 해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엄마와 내가 흠어져서
살더라도, 우리가 가족인 건
변하지 않을테니까...

바뀌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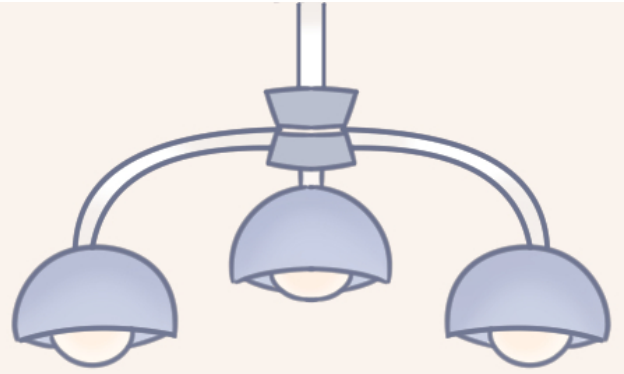
두 국가가 된 우리들도
여전히 한 민족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원래 하나였던 걸 다시 합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그것이 우리의 통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내 두 눈으로
통일의 순간을 보지 못하더라도
남북통일을 간절히 염원할 것이다.



감동..

할머니께서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할머니 왔다!

띠리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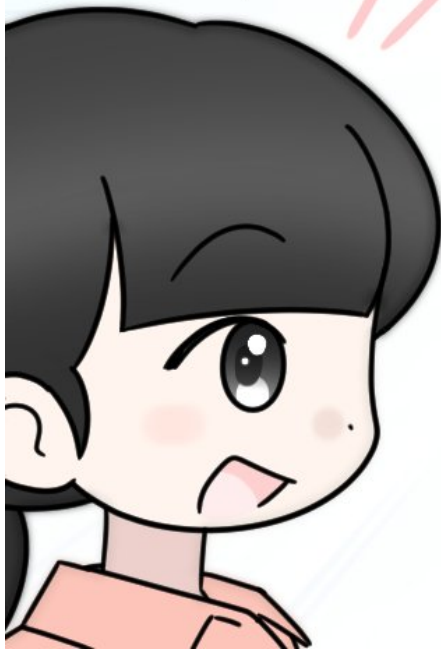
친구들이랑 남북통일 기념으로
금강산 보고 왔어!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절경이더라~

다녀오셨어요!

와! 정말
좋으셨겠다!

능능하!



**당신의 통일을 향한 바람과 의지가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이뤄낼 것입니다.**

